**썬다싱 설교 1**

​



 "멀지 않은 하늘 나라"  1922년 3월 7일 로잔에서 한 설교

막1234. 이에 예수께서 그가 분별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느니라,

이 일 후에 아무도 감히 그분께 어떤 질문을 물으려 하지 않으니라.

이 서기관은 주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질문했다.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었지만,

그의 대답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 하셨다.

그는 매우 유식한 사람이었다.

이 위대한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기뻤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이 사람은 책망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섭섭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지 마음의 믿음이 아니었다.

종종 지적인 것들이 목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간다.

만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대답했다면,

그리스도는 "네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죄인들이 구원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다섯처녀는 결혼식장 밖에서 기다리고, 다섯처녀는 안에 있었다.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만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혼인식장에서 멀지 않으니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노래할 수 없다" 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나는 몇 년 전에 여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냥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에는 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었다.

그는 손에 총을 들고서 멀리 있는 사자를 겨냥했다. 그는 사자에게 총을 쏘았지만

맞추지 못했는데, 사자가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위험에 처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행자를 위해 지어놓은 집이 있어서,

사냥꾼은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그에게는 열쇠가 없었다.

그는 문 앞으로 가서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열쇠를 찾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가 문 가까이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를 공격하여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만일 이 사람이 집 안에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추적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 서기관처럼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신자들이 많다.

그들은 " 이것은 훌륭한 진리다"라고 한다.

그러나 머리로 존경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마음으로 존경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그의 가르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있었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 처럼 가슴을 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가까이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 분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병 안에 있는 안약을 본다.

안약이 우리 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약을 보지 못한다. 안약은 눈을 깨끗하게

해주지만, 눈은 안약을 보지 못하며 안약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다.

당신은 "내 눈에 안약을 넣었다" 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을 볼 수 없다.

안약처럼, 그분도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히 씻어낸다.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구원받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느낀다" 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인정하며

장차 그분을 위해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때에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을 발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이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곳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잠잠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 고

증거한다.

내 친구가 티베트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불교 스님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를 어리석다고 했다.

그들은 "당신은 잠잠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 그리고는 밧줄로 그의 두 발을

묶어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았다. 무척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기분이 어떠냐" 고 물었다.

"세상에서 천국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나로 내 구주를 위해 고난 당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나는 당신들이 내게 행한 일로 인해 놀라지 않는다. 당신들은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본성을 나타냈다. 세상은 뒤집어져 있고, 세상의 행동들도 뒤집어져 있다.

뒤집어져 있는 이 세상은 어느 것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본다.

이 세상은 뒤집어져 있고, 당신의 본성도 뒤집어져 있다.

타인들은 나를 거꾸로 매달았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거꾸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매달린 것이다.

환등기에 필름을 넣을 때에는 거꾸로 넣어야 스크린에 똑바로 영상이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방법에 의하면 나는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천국에서는 바로 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증거이다. 이 사람은 천국에 있었다.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느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독교가 어떤 실재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며 천국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흡사하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셋이었다. 영적으로 그들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앙의 십자가에는 구주가 달리셨고, 양편에 각각 강도들이 달렸다.

주님은 이 강도들 사이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왼편의 강도는 죄 속에서 죽었고, 오른편 강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한 사람은 죄를 대신하여.

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나머지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

왼편의 강도는 구주의 가슴과 옆구리 근처에 있었다.

흐르는 물과 피 가까이에 있었지만, 뉘우치지 않고 죄 속에서 죽었다.

오른편 강도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말했다.

이 사람은 믿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날 후에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낙원에 갔다. 죄 가운데서 죽은 왼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회개한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을 약속 받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 삶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매일 얼마 동안 기도하시오. 그러면 삶에서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너에게는 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스리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 사두 선다싱 전집 (은성)-

Tags

선각자